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인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동참해주세요

2026년 제 03호



2022년 4월, 하늘에 별이 된 김포FC 유소년 축구 U-18팀 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01

"K-스포츠의 해, '모두의 스포츠' 현장을 위한 약속"...

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

02

남들 실패 확률 논하는 아주 성공한 체육인들

동아일보 황규인 기자

03

불쑥 바뀐 크로스컨트리 국대 기준... "불공정" 항의는 묻혔다

서울신문 박성국 기자

04

30명 중 29등 했는데 뽑혔다... 기계체조 국가대표도 '아빠 찬스' 의혹

JTBC 김천 기자

05

스포츠윤리센터, 체육계 성희롱·성폭력 실천 규약 가이드 제작 "...

스타뉴스 김우종 기자

"K-스포츠의 해, '모두의 스포츠' 현장을 위한 약속" 국민체육진흥공단X대한체육회X장애인체육회, 문체부 업무보고

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

026.01.13.19:06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새해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업무보고를 받은 후 토론에 나섰다.

문체부는 13~16일 총 4회에 걸쳐 총 59개의 소속·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의 업무보고를 이어간다. 이는 12월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기관별로 보고한 정책들이 속도감 있게 이행되고 있는지, 기존의 관성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 기관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13일 1차 업무보고는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문체부 정책의 3대 축 "문화강국 토대 구축, 'K-컬처' 산업 육성, 관광·체육 활성화" 등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을 비롯한 스포츠, 문화예술, 관광 관련 총 18개 기관이 참가했다. 대통령 보고와 마찬가지로 전 토론 과정이 KTV 방송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18개 기관중 16번째로 보고에 나선 하형주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은 5대 중점 추진 과제로 ①스포츠 참여 포인트제 고도화(포인트 적립시설 2025년 4000개 →2026년 6000개 확대. 지역화폐 금융사 포인트 연계, 2030년까지 수혜인원 40만명, 생활체육참여율 2024년 60.7%→2030년 65%) ② AI 데이터 기반 국민체력 관리 혁신(체력인증센터 2025년 75개→2030년 150개, 초개인 맞춤형 AI 운동처방, 측정장비 디지털화) ③ 스마트 지역재생형 국민체육센터 확충(경량형: 100억~150억원 규모, 스마트형: AI, VR, 노후 공설 운동장→지역 생활체육 거점) ④세계가 찾아오는 공연형 아레나 건립(5만석 규모 1곳, 중규모 1곳, 스포츠-K팝 복합활용형 돐구조, 공공+민간투자 최적의 자원조달 방안 수립) ⑤ 체육인 생애주기 복지 경력개발 지원(저금리 대출, 공제사업, 체육인 특례 산재 고용보험, 진로지원 강화, 체육인 복지법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한 법적근거, 자원 확보) 등 계획을 차례로 밝혔다.



01

최휘영 장관은 "국민들이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이름은 잘 알지만 '이런 일을 하겠지' 정도로 알고 있다"면서 "스포츠 참여 포인트제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광범위하게 쓸 수 있도록 하려면 뭐가 더 필요한가"라고 질문했다. 하 이사장은 "현재 1인당 5만원씩 8만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40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2030년까지 40만명, 생활체육 참여율 65%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40만명 대상으로 지원하려면 향후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2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지자체와 예산을 나누는 방안에 대해 하 이사장은 "우리 직접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최 장관은 "공연형 아레나 관련 같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다. 좀더 고민이 필요하다. 기민하게 이야기를 나눠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AI 운동처방은 어느 수준까지 돼 있느냐"는 질문에 하 이사장은 "AI 운동처방은 빅데이터 기반으로 처방의 일관성, 치밀함을 높이는 단계로 아직은 사람 대체라기보다는 국민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답했다. 최 장관이 "체력인증, 처방 관련 예약이 많다는데 해법이 있느냐"고 묻자 하 이사장은 "현재 75개소인데 15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센터를 늘리는 것 말고도 조조, 야간, 주말 서비스를 확대해야겠고, 출장 서비스도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9월에 스포츠박물관 개관과 관련한 질문엔 "착실히 잘 준비되고 있다"고 답했다. 최 장관은 스포츠박물관 내 서울패럴림픽의 역사도 함께 잘 담아줄 것을 특별 당부했고 하 이사장은 "장애인체육회와 잘 차질없이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최 장관이 "1988년 서울패럴림픽은 상징적이고 역사에 남을 중요한 대회였는데 잘 챙겨지지 못했다.

그 의미(최초로 올림픽-패럴림픽이 한 장소에서 열림)를 듣고 놀랐다"고 하자 하 이사장은 "비장애쪽 전시품은 5만~6만 점인데 장애인쪽은 1200점밖에 없다. 규모나 면적 면에서 제한이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최 장관은 "남겨진 것이 없다면 기억할 수 있는 형상들을 자꾸 개발할 필요도 있다"면서 "남아 있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기억하고 보존하고 만들어나가는 공간, 사람들이 이런 일도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공간"을 제안했다. 하 이사장이 "역사적인 순간을 잘 담아서 챙기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01

이어 17번째로 보고에 나선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올해 2대 중점 추진 과제로 ①국제종합 경기대회 우수성적 거양 노력(국가대표 경기력 지원, 선수 육성 체계 강화, 메디컬 지원 강화) ② 체육계 부조리 척결을 위한 제도 개선(정보 사각지대 해소, 임원 징계 관할권 상향, 비위행위 적극 대응)을 밝혔다. 첫째, K-스포츠의 해, 국제대회 우수성적을 위해 대회별 맞춤형 지원 프로젝트 '팀 업 코리아'를 통해 심리,의료, 영양, 스포츠과학을 적극 지원하고, 현지 급식센터 및 코리아하우스 운영을 통해 사기 및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튼튼한 국가대표 육성체계 구축을 위해 '예비 국가대표' 제도를 신규 도입해 국가대표 합동훈련 및 특별훈련을 연 100일씩 지원하고, 선수촌 내 MRI를 도입하고 의료 인력을 증원하고 메디컬 센터를 증축해 국가대표 선수의 메디컬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유 회장은 "K-스포츠의 해, 우리 선수들이 세계 무대에서 최대한 발휘하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스포츠로 국민이 통하하고 대회 감독이 일상속 체육활동으로 스며드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겠다고 약속했다. 외교력 발휘해 K스포츠 위상을 전세계에 알리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K-스포츠의 해의 방향성에 공감한다면서 국제대회가 연이어 열린다. 대한체육회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최고의 역량 발휘하도록 최대한 지원해주시고 필요한 것 있으면 말씀해달라"고 말했다. 유 회장은 K-컬처의 원조, K-스포츠의 가치를 역설했다. "K의 원조는 스포츠다. 전세계에 대한민국 브랜드를 알린 것이 1988년 서울올림픽"이라면서 "1988년 서울올림픽은 동서가 함께한 완성의 올림픽으로 대한민국을 전세계에 알렸다. 또 2018년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남북 관계를 스포츠로 풀어냈다. 굵직한 스포츠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K브랜드를 전세계에 알렸다"고 말했다. "스포츠는 고 부가가치 산업이다. 전세계 스포츠의 부가가치가 1000조인데 대한민국 100조가 안된다. 올림픽은 스포츠를 뛰어넘는 가치다. 다양한 산업군이 성장하고 영감을 주는 콘텐츠"라고 강조했다. "올해 열리는 국제대회를 기반으로 K 응원단 이벤트, 코리아하우스 등 K-스포츠가 전세계를 선도하는 분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01

최 장관은 유 회장에게 "작년 3월 취임 후 체육회 개혁을 이끌어 오셨다. 애쓰셨다"면서 "과정이 쉽지 않았을 텐데 무엇이 가장 힘들었는지, 어떤 일들을 실행하고 싶은지"를 질문했다. 유 회장은 "대한체육회 산하단체가 굉장히 많다. 지방체육회, 종목단체 모두 합쳐 1만여개가 된다. 한목소리로 모으는 것이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기타 공공기관장을 1년간 겪어보니 생각한 것보다 어려운 점이 많다. 규제가 많다. 업무 수행, 공격적인 실행을 하려면 규제에 직면하게 된다"고 털어놨다. "대한축구협회 수익이 1400억원인데 대한체육회는 140억원이다. 10분의 1이다보니 운영기금을 정부에 목을 매야하는 상황"이라며 자생, 자치의 어려움을 전했다. "IOC는 올림픽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1년에 3조 수익이 발생한다. IOC에서 나는 이것을 더 잘 쓰는 법을 배웠다. 90% 수익을 다 나눠준다. 선수, 지도자 NOC 연맹에 나눠주면서 지속가능한 스포츠 모델을 만든다. 산하단체가 예산 관련 민원을 하는데 대한체육회는 자체 예산이 없어 줄수가 없다. 전국체전이나 선수들을 통해 수익을 확대하는 것이 첫 번째 이슈"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복싱대회에서 뇌사 사건에 빠진 학생선수 사건, 스포츠 폭력 관련 경각심을 일깨운 후 "스포츠는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넓고 방대하다보니 일이 일어날 때마다 많은 주목을 받게 된다. 스포츠 폭력과 관련해선 단 한번의 폭력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책 의지를 갖고 있다. 철저히 이 원칙이 지켜지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 18번째,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이 중점추진과제를 보고했다. 국정과제인 '국민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일상에서 차별없이 누리는 장애인체육' 정책을 밝혔다.

① 장애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장애인 생활체육 환경 기반 지원 ② 기회를 넓히고 기반을 강화하는 장애인 전문체육 및 국제 경쟁력 제고를 중점 추진과제로 보고했다. 첫째, 장애인 생활체육 환경 기반 지원을 위해 반다비체육센터 장애인 이용 활성화 및 안전관리 매뉴얼, 우수시설 사례집 배포, 장애-비장애학생 통합체육 교실(170개소) 및 전국 어울림생활체육 대축전 개최 지원, 장애인 스포츠클럽 확대 및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운영,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발굴 및 시니어 친화 생활체육 프로그램(파크골프, 론볼 등) 보급 등의 세부 계획을 밝혔다.



01

둘째, 밀라노·코르티나 패럴림픽, 아이치·나고야장애인아시안게임의 해, 장애인 전문체육 및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기력 향상 및 참가 지원 확대, 장애인 선수 발굴(기관 합동 선수 발굴단), 등급 분류 체계 강화(등급분류사 320명), 장애인 스포츠 교류 통한 국제 네트워크 확대 등의 목표를 밝혔다.

최휘영 장관이 "전문선수의 세대교체" 관련 어려움을 짚자 정 회장은 "의료 기술의 발달로 장애인이 줄고 있는 건 국가적으로 좋은 일"이라고 답한 후 "고령화 노인성 장애가 많아서 선수전환이 쉽지 않고, 학부모들이 학생들에게 스포츠보다 학업 위주로 강조하다보니 선수 수급이 어렵다"고 했다. "20세 이하 등록장애인이 9만명이다. 유청소년들이 스포츠로 유입되도록 선수 발굴단을 적극 운영하고,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도록 전담지도자 배치 계획도 갖고 있다. 맞춤형 선수육성 지원 체계를 갖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반다비체육센터의 장애인 이용률이 10% 이하라는 지적에 대해 정 회장은 "운영주체의 문제"라면서 "민간시설이나 지역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경우 장애인보다 비장애인이 이용률이 높은 경우도 있다"고 답했다.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센터 운영에 더 개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정 회장은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교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반다비체육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전국의 장애인들이 더 많이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최 장관은 전직 문체부 장애인체육과장 출신 정 회장의 이력을 짚으며 "정책을 설계하시다가 현장에서 집행하는 조직의 수장이 되니 어떤지" 질문했다. 정 회장은 "문체부 장애인체육과장을 5년 하면서 정책, 정부의 고민을 습득한 것이 기관 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면서 "연임을 해서 5년째 회장을 하고 있는데 큰 문제는 없었다고 자부한다. 정부 운영 체계를 잘 알고 있어서 공공기관 평가에서도 잘하고 있다고 자부한다"고 답했다. 최 장관은 "올해 장애인체육도 큰 대회가 많은데 선수들을 더 잘 챙겨주시길 당부드린다"는 말로 토론을 마쳤다.

이날 보고회는 당초 150분으로 예정됐으나 최 장관과 공공기관들의 열정적인 참여 속에 4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01

최 장관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예정된 시간을 한참 넘겼다"면서 "문체부와 각 기관들이 어떻게 일들을 준비하고 하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을 것"이라고 자평했다. "더 책임 있게, 치열하게 현장을 위해 일할 것이라는 약속을 국민께 드리는 자리였다. 각 기관별로 성과가 기대되는 사업도 있었고 보완이 필요한 점도 똑똑히 보였다. 앞으로 일상적으로 협의, 논의하면서 보완해나가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해가자"면서 "6개월 후에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때까지 여기 계신 한분 한분 스스로 야전사령관이라고 생각하시고 현장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을 위해 잘 챙겨달라. 문체부도 한몸으로 함께 하나갈 것이다. 저 역시 함께 챙기고 노력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



남들 실패 확률 논하는 아주 성공한 체육인들

동아일보 황규인 기자

2026.01.13.23:12

사진=황규인 스포츠부 차장

‘자칭’ 증권 전문가가 32명에게 메일을 보낸다. 16명에게는 “이 주식이 100% 오를 것”이라고 쓰고 16명에게는 “100% 내릴 것”이라고 쓴다. 실제로 주식이 올랐다면 ‘오른다’고 메일을 보냈던 16명을 다시 반으로 나눠 똑같이 작업한다. 이 과정을 네 번만 반복하면 그는 최후의 1인에게 ‘족집게 전문가’가 될 수 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학생 선수 최저학력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체육계 목소리에도 이 ‘최후의 1인’ 논리가 담겨 있다.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와 지도자위원회는 8일 “최저학력제는 ‘운동선수로서의 성공 가능성이 작으므로 대비해야 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설계됐다”면서 “이 논리는 수많은 선수를 이미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존재, 즉 잠재적 낙오자로 규정하는 시각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단 이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에 올랐다는 것부터 ‘아주 성공한’ 선수·지도자라는 뜻이다. 김국영 선수위원장은 한국 육상 남자 100m 기록(10초07) 보유자고, 송대남 지도자 위원장은 2012 런던 올림픽 유도 남자 90kg급 금메달리스트다. 이들은 선수 은퇴 후에도 체육계에 남아 미래를 설계할 수 있었다. 김 위원장은 한국 육상 대표팀 코치, 송 위원장은 실업팀 감독이다.

‘보통들’의 현실은 다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난해 펴낸 ‘2024년 체육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은퇴 선수 6만4380명 가운데 23.3%만 체육계에 남았다. 이보다 10%포인트 많은 33.3%는 이해 연봉으로 ‘없음’을 선택했다. 또 가장 많은 72.3%가 ‘재취업 및 직업교육 지원’을 가장 필요한 복지 정책으로 꼽았다.



이 조사는 은퇴 후 초중고 체육 선생님이 된 경우도 체육계 활동을 이어가는 것으로 분류했다. 김준호 칠성중 교사도 같은 길을 걷게 된 은퇴 선수 2.7% 중 한 명이다. 김 교사는 2016년 8월 24일 프로야구 마산 경기 시구자로 나섰다. 시구 행사가 끝나자 TV 중계를 맡았던 허구연 현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는 “학창 시절에 야구 한 거 아니가요? 폼이 거의 완벽한데요”라고 평했다. 김 교사는 1군 무대 통산 59경기 출전 기록을 남긴 프로야구 선수 출신이지만 고려대 선배인 허 총재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프로야구 신인 드래프트 참가 신청자 숫자를 기준으로 하면 1군 경기 출전 기록을 남기는 것도 상위 5% 안에 드는 ‘성공 사례’다. 이 정도 성공도 금방 잊히고 마는 게 스포츠 세계 생리다. 어떤 스포츠든 성공을 거둔다는 건 다른 누군가를 패배자로 만들었다는 뜻이다. 성공이 코앞이던 선수도 경쟁에서 밀리는 순간 ‘주식 오른다는 말을 괜히 믿었다’며 세상으로 나와야 한다.

선수·지도자위원회는 “학습권 보장 정책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세이프가딩(safeguarding)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했다. 아니다. 이 원칙에는 ‘선수의 교육적 요구를 무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보통의 존재’를 보호하려는 이 원칙을 가장 불편해하는 존재가 ‘이들이 실패한 덕에 성공한 체육인’이라는 사실은 그래서 처음부터 설명이 필요 없는지도 모른다.



03

불쑥 바뀐 크로스컨트리 국대 기준... “불공정” 항의는 물었다

서울신문 박성국 기자

2026.01.16.20:02

사진=변지영

2026 동계올림픽 참가선수 선발 규정안

2025년 10월 31일

선발 부문	개정안	비고
국제종합대회 - OWG, AWG 등(출전 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 선발기준 신설: 2026OWG부터 → (A)선발전 2개 결과 (60%) + (B)시즌 국제대회 최고3개 결과 (40%) - 기본자격 선수 전원 기회 제공(공평)+해당 선수 국제경기력 반영(자동) - (A)선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개최 2개 대회 (4개 경기) 결과 합산: 12월 FEC + 1월 FEC / 개인출발 거리 C(클레스) + F(프리) - (B)시즌 국제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간: 해당대회 개최 '-2년'(2년전) 11월1일 ~ 개최년도 1월5일 등급: WSC, WC, COC (선발전 제외) 참가 대회 결과 중 최고(베스트) 3개 FIS포인트 합산 - 선발 점수 방식 *다음페이지 표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B) 부문별 결과 집계 후 순위별 점수 배점 후 선발 (A) 최대 60점, 순위간 3점 차이 (1위 60점, 2위 57점, 3위 54점 등) (B) 최대 40점, 순위간 3점 차이 (1위 40점, 2위 37점, 3위 34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롤러스키대회 결과 제외 ○ 단, 선발전 결과 반영 불가 시 (조직위/대한체육회 선발명단 제출 기한 혹은 대회 개최 불가 등) (B)시즌 국제대회 최고3개 결과 (100%) 반영 선발

2025.10.31.개정 완료

★동점자 발생 시, FIS 포인트 적용 우선 선발 명시

<비고>

○(A)+(B) 합산 동점자 발생 시, FIS 포인트 적용 우선 선발

○(A) 선발전 4경기 배점: 아래 순서대로 적용

1) 경기별 참가 국내선수 간 순위로 평가(순위별 배점) > FIS포인트 미적용 (개정규정에 명시없음)

2) 경기별 순위 1차 배점(1위 60점부터)합산 > 4개 경기 모두 1위 선수의 경우 240점

3) 1차 순위 토대로 2차 배점(1위 60점부터)

2026년 1월 8일 선발

지난해 10월 31일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가 크로스컨트리 국가대표 선수단에 보낸 ‘2026 동계올림픽 참가선수 선발 규정안’에는 ‘★동점자 발생 시, FIS 포인트 적용 우선 선발’이라는 문구가 담겼지만, 협회는 지난 8일 올림픽 출전 선수 명단을 발표하면서 선발전 2개 대회(A)는 ‘개정 규정에 명시 없음’을 이유로 FIS 포인트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변지영 제공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개막(한국시간 2월 7일)이 2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스키 크로스컨트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대한체육회에 ‘선발 과정이 불합리하다’는 민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규정 제정 당시 부당함을 지적하는 지도자의 목소리도 많았으나 그대로 강행됐다는 내부 폭로도 나왔다.

1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 산하 노르딕위원회는 지난 8일 밀라노 올림픽 크로스컨트리 출전 선수 명단을 확정, 대표팀에 공지했다. 크로스컨트리는 설원 위 장거리를 달리는 기록 경쟁 종목으로 ‘설상의 마라톤’으로 불린다. 이번 대회에는 남자부 1명, 여자부 2명이 최종 선발됐다.



03

위원회의 이번 결정 과정을 두고 대표팀 남자부 변지영(28), 이건용(33), 이진복(24)은 “애초 선발 기준 자체가 불공정하게 설계됐다”면서 “체육회와 스키협회에 여러 차례 이의를 제기했지만 그대로 진행됐다”고 반발했다. 5명이 총원인 남자 대표팀에서 올림픽 출전이 결정된 당사자를 제외한 4명 가운데 3명이 절차의 부당함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선수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체육회는 ‘소관 기관에 이첩했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내놨다. 지난해 2월 취임 이후 줄곧 “공정한 스포츠 환경 조성”을 강조한 유승민 체육회장의 다짐과도 배치되는 대목이다. 세 선수가 가장 크게 지적하는 문제는 국가대표 선발기준이 석연치 않게 바뀐 점이다. 위원회는 지난해 10월 31일 대표팀에 ‘국제종합대회 선발기준’을 공지했다. 밀라노 올림픽 출전 선수 선발부터 ▲국내 선발전 2개 대회 결과(60%)에 ▲시즌 국제대회 최고 3개 대회 결과(40%)를 합산하기로 하면서, 올림픽 개최 ‘2년 전 대회’의 결과부터 채점에 반영하기로 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세 선수는 “과거에 이미 좋은 성적을 확보한 선수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라고 입을 모았다.

밀라노 올림픽 출전이 결정된 A선수는 스키협회의 선발 규정에 따라 국제스키연맹(FIS) 포인트 합계 310.16으로 남자부 1위에 오르며 ‘2년간 국제대회 성적’에 걸린 40점 만점을 확보했고, 합계 345.79의 변지영은 2위로 37점을 받았다. 스키 종목은 대회 순위가 앞설수록 포인트를 적게 받는다.

이를 두고 노르딕위원회 소속으로 관련 회의에 참석했던 B씨는 “동계 종목은 대부분 선발전을 통해 올림픽 출전 선수를 선발하는데, 회의를 주도한 C위원이 ‘지난 2년 국제대회 성과 평가’를 저를 포함한 일부 위원들의 반대에도 8인 다수결 표결로 밀어붙였다”고 밝혔다. 그는 “노르딕위원회는 과거부터 특정 지역·특정 대학 출신 인사들이 올림픽 때마다 선발 규정을 급조해 뒷말이 많았다”면서 “이번 결정으로 후배 선수들이 부당함을 호소하는 모습을 보고 지도자로서 더는 침묵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03

변지영은 “2018 평창 대회를 앞두고는 선발전을 치르겠다더니 돌연 말을 바꿔 선발전 없이 FIS 포인트만을 기준으로 선발했는데, 당시 대표팀 선수 가운데 D대학 선수의 포인트가 가장 좋았고 2022 베이징 대회 땀 D대학 선수의 포인트가 선발권에서 멀어지자 포인트 평가 대신 선발전을 치렀다”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이번 선출 규정 개정을 주도한 C위원과 선발된 A선수 모두 D대학 출신이다.

아울러 변지영은 지난 4일 대표 선발전이 끝난 이후 점수 합산 방식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배점 60점이 걸린 올림픽 선발전 2개 대회에선 A선수와 변지영이 1차 대회에서 각각 1, 2위를 차지했고 2차 대회는 변지영이 1위, A선수가 2위로 마무리됐다. 두 차례 선발전의 FIS 포인트로는 변지영이 441.84로 442.48의 A선수에 앞섰다. 둘은 선발전에 걸린 60점을 모두 확보해 동점이 됐지만, 애초 ‘동점자 발생 시 FIS 포인트 적용 우선 선발’을 안내했던 위원회는 ‘개정 규정에 명시되지 않았다’며 선발전 합산에는 포인트를 적용하지 않았다.

세 선수는 “불공정한 선발로 무고하게 피해를 보는 선수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목소리로 “특정 선수를 비난하려는 게 아니다. 그 선수는 자신의 위치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우리가 바라는 건 오래되고 잘못된 이 바닥의 관행을 끊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진복은 “선발은 결과가 아닌 과정이 공정해야 한다. 지금의 구조는 공정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이건용은 “나는 같은 종목에서 매년 1위를 했으나, 이런 식의 규정 변경으로 올림픽에 도전한 지 4회째 16년을 허비했고 이제는 나이가 많아 꿈을 접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체육회 관계자는 “그간 선수 선발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면밀히 검토해 제도적으로 변경·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면서 “현재 관련 부서에서 이 사안을 다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30명 중 29등 했는데 뽑혔다...기계체조 국가대표도 '아빠 찬스' 의혹

JTBC 김천 기자

2026.01.16.06:41

사진=연합뉴스

올림픽 메달리스트 출신인 대한체조협회 간부의 딸이 여자 기계체조 국가대표에 선발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돼 감사원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16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체조협회 간부 A씨의 딸 B씨는 지난해 4월 여자 기계체조 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했습니다.

B씨는 선발전 4종목 가운데 3종목은 기권, 1종목에만 출전해 0.5점을 받았습니다. 4종목에 모두 출전한 선수들의 총점은 40~50점 수준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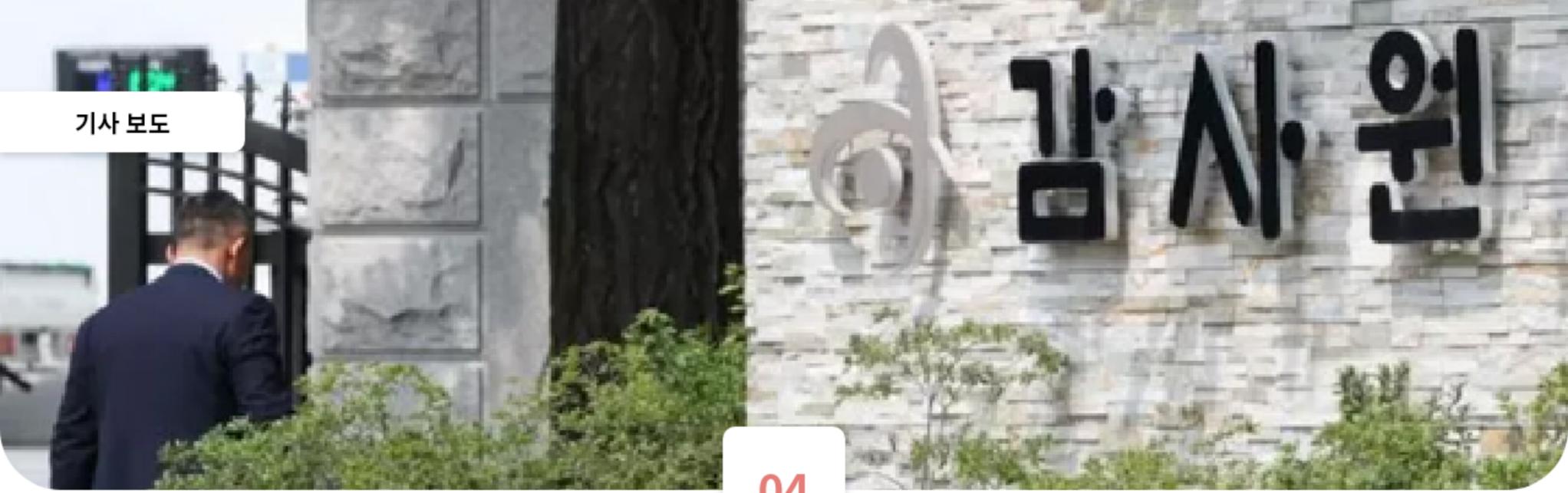
0.5점을 받은 B씨는 결국 전체 30명 중 29등을 기록했습니다. 통상적 기준으로 보면 탈락이 확실한 순위였습니다.

하지만 최종 9명을 뽑는 국가대표 명단에는 B씨의 이름이 올랐습니다. 반면 총점 순위 8등이었던 선수는 B씨에 밀려 떨어졌습니다.

29등이었던 B씨가 국가대표에 선발된 건 선발전 직전 변경된 체조협회 규정 때문입니다.

체조협회는 선발전을 한 달여 앞두고 국가대표 선발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성적순 9명 선발'이었던 것을 6명은 성적순으로, 3명은 랭킹포인트(과거 입상 성적) 순으로 바꾼 겁니다.



B씨는 바뀐 규정으로 인해 랭킹포인트에서 만점을 받았고 이로 인해 순위는 29등에서 9등으로 오르게 됐습니다.

논란이 되는 점은 B씨가 혜택을 본 랭킹포인트 제도를 체조협회가 2024년 9월 폐지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B씨가 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할 때 부활한 겁니다.

이 때문에 체조협회 간부인 B씨 아버지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왔다고 합니다.

실제 체조협회 상급 기관인 대한체육회는 B씨가 포함된 국가대표 명단을 승인해달라는 체조협회의 요청에 '객관적 자료 부족'을 이유로 B씨를 포함해 3명의 승인을 보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체조협회는 B씨가 메달을 딸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을 추가해 재승인을 요청했고 대한체육회는 결국 승인했습니다.

A씨는 매체에 "국가대표를 성적순으로만 뽑으니 미래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 시행착오를 바로 잡은 것뿐"이라면서 "(B씨가) 당장 성적인 안 나와도 선수촌에서 제대로 키워 세계 대회 메달을 따도록 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이었고 독단적 판단이 아닌 경기력향상 위원회와 감독 등이 함께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05

스포츠윤리센터, 체육계 성희롱·성폭력 실천 규약 가이드 제작 "안전하고 존중받는 스포츠 환경을 위해"

스타뉴스 김우종 기자

2026.01.14.19:41

사진=스포츠윤리센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가 14일 "체육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존중받는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 체육계 성희롱·성폭력 예방 실천 규약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천 규약 가이드는 문체부(양성평등정책담당관)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선수와 지도자, 임직원 등 체육계 구성원 모두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행동 기준과 실천 원칙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센터는 "특히 훈련장을 비롯한 경기장, 숙소 등 체육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별 및 선수, 지도자, 보호자 등 대상별로 지켜야 할 예방 및 대응 방법을 보기 쉽게 한눈에 담아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실천 규약 가이드에는 ▲스포츠 인권 이해하기, ▲이럴 땐, 이렇게 행동하기, ▲도움 요청하기 및 받기, 주변인 개입을 활용한 피해 예방 가이드 등이 체계적으로 담겨있다.

박지영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은 "이번 체육계 성희롱·성폭력 실천 규약 가이드를 통해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스포츠 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이번에 발간된 실천 규약 가이드를 체육단체, 교육부 등 주요 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스포츠윤리센터 누리집(자료실-발간자료)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체육 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여러분의 후원이 건강한 스포츠 사회를 만듭니다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인권과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문화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후원: 국민은행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연말 기부금 영수증 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https://www.sportscm.org/%ED%9B%84%EC%9B%90%ED%95%98%EA%B8%B0>